

# 구례군 “농민이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”

### ‘영호남 농업인 화합한마당’ 구례에서 개최 전남-경남 오가며 매년 실시...1박2일 진행 “하나로 단결된다면 어려운 농정현안 극복”

구례군은 호남과 영남 농업경영인  
입원 100여 명이 구례군 지리산스위  
스호텔에서 ‘농민이 웃는 그날까지 우  
리의 여정은 계속된다’라는 주제로  
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

다.  
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영호남 농  
업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2005년부터  
시작되어 전남도와 경남도를 오가며  
매년 실시하고 있다.

이번 행사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 
1박 2일로 진행되며, 정임수 전남농업  
경영인연합회장의 대회사와 이학구  
경남농업경영인연합회장의 답례사로  
기념식이 시작되었다.

영호남 농업경영인들은 결의문 낭  
독을 통해 “이번 행사를 계기로 영호  
남이 하나로 단결된다면 그 어느 때보  
다 어려운 농정현안들은 슬기롭게 극  
복해 나갈 것”이라고 다짐했다.

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  
군수를 비롯해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  
장,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, 강

희식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 
등이 농업경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 
참석했다.

김순호 구례군수는 “이번 행사를 계  
기로 영호남 농업경영인들이 힘과 지  
혜를 모아 위기의 농업을 함께 이겨내  
고, 농업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  
께 해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참석자들은 기념식을 마치고, 원효·  
도선국사·진각·의상 4명의 고승이  
수도하였다고 전해오는 구례 오산 사  
성암을 탐방했다.

구례=박진호기자



## 화순군, 농민 호응 속 ‘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’ 마무리

32개 마을 참여...농기계 229대 수리·381명 안전교육



화순군은 농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영  
농철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  
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  
올해 ‘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’은

13개 읍·면 32개 마을에서 농민 318  
명이 참여했다.  
군은 32개 마을을 순회하며 경운기,  
관리기, 예취기 등 소형 농기계 중심

으로 229대를 수리하고 1만 원 이하  
의 수리 소모품은 무상으로 지원해 농  
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.

순회수리 전문팀은 농업기술센터  
농업기계팀과 읍·면농업인상담소장  
으로 구성해 단순히 수리에 그치지 않  
고 농업인 381명을 대상으로 직접 수  
리하도록 점검 요령 등을 교육했다.  
이와 함께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 
사항 등도 상담했다.

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“앞  
으로도 농업기계 순회수리, 교육을 통  
해 농업인들이 자가 수리 능력을 높이  
는데 초점을 두고 농업기계의 관리요  
령과 안전 운전법 교육 등 내실 있는  
교육을 진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
화순=박순철기자

## 나주시, 전국 로컬푸드 지수 평가 ‘최우수’ A등급

농림부 장관상 수상 경쟁력 입증·누적 매출 약 226억원

친환경 농산물의 성지, 전라남  
도 나주시가 산지 먹거리인 ‘로컬푸드  
(Local food) 활성화 평가에서 쾌거  
의 성과를 냈다.

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 
159개 시·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 
2020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에서 ‘최우  
수 지자체’(A등급)로 선정돼 농식품부  
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.

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지수 평가는  
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산을 위한  
실천 로드맵으로 각 지자체별 로컬푸  
드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계량적으로  
측정·공표한다.

올해 첫 시행된 평가는 농림축산식

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  
가 주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
된 소비자시민모임이 시행을 맡았다.

로컬푸드 지수는 ‘로컬푸드 생산·  
소비체계’, ‘지역경제활성화’, ‘먹거리  
거버넌스’ 3대 분야 10개 평가 지표로  
구성됐다. 1차 서면, 2차 현장 방문·심  
사 등을 거쳐 지표별 점수를 채점해  
S-E등급을 매긴다.

나주시는 전북 완주군(S등급)에  
이어 최우수 지자체에게 주어지는 A등  
급을 달성, 전국적인 로컬푸드 경쟁력  
을 입증해냈다.

특히 ‘공적추진체계 마련’, ‘기획생  
산 촉진’, ‘먹거리 접근성 개선’ 등에서

높은 점수를 받았다.

로컬푸드 공급·소비체계가 자리를  
잡아가면서 지금까지 로컬푸드 관련  
누적매출액은 약 226억원에 달한다.

강인규 시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 
“민선 6기 때부터 먹거리 공공성에 대  
해 일관해온 정책적 의지와 생산자와  
소비자 간의 신뢰, 시민들의 폭넓은  
지지가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”라고  
평가했다.

강 시장은 “지금까지는 행정 주도  
로 생산·유통 등 지역 먹거리의 구조  
적 토대를 다져왔다면 앞으로는 민·  
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하  
고 자생적인 먹거리 성장 동력을 확보  
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기동취재본부

## ‘코로나19 위기 속에 반짝이는 희망을’ 담양 대전면, 대전 오일장 활력 조성 행사



담양군 대전면에서 지역경제의  
기반인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  
고자 오는 8일 9시 대전 오일장에  
서 주민단체들이 협력해 소규모 행

사를 개최한다.  
최근 코로나19로 인  
해 비대면이 사회 전  
반에 주를 이루고 전  
통시장의 경쟁력 약화  
로 인해 지역 소상공  
인들이 겪는 위기는  
매우 심각한 실정이

서는 마을에서 생산된 국산 품으로  
만든 청국장을 선보인다. 행사 수익  
금은 관내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 
예정이다.

또한,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  
기와 막걸리 등 먹거리를 준비해  
오가는 이들에게 따뜻한과 훈훈  
함을 전하고, 아가자기한 행사를 함  
께하며 전통 재래시장의 멋과 정취  
를 살릴 계획이다.

한흥택 대전면주민자치회 위원  
장은 “지역경제에 활력을 조성해  
오일장터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위  
로가 되고, 실망이 희망으로 변하길  
바라는 마음에서 본 행사를 개최하  
고자 한다”고 말했다.

담양=박종영기자

## 곡성명품농업대학, 곡성명물 토란 활용한 파이제조 실습 실시

곡성군은 지난 11월 2일 레저문화  
센터 요리교실에서 곡성명품농업대학  
농식품가공반 교육생 36명을 대상  
으로 곡성의 대표 특산물인 토란을 이  
용한 토란파이 제조실습 교육을 진행하  
였다.

이번교육은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 
서 직접 개발한 토란파이 제조기술  
확산을 위해 김해정 주무관이 강사로 나  
섰으며, 전국 최대 토란 생산지인 곡성  
에서 생산된 햇토란과 토란분말을 이  
용해 건강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토  
란파이를 만들기 위한 레시피 등을 공  
유하고 제조기술 노하우를 전수했다.  
농식품가공반 교육생들은 실습교육



을 통해 재료별 특성에 따른 배합 순  
서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, 반죽 상태  
및 오븐에 구워져 나왔을 때의 모양

등을 직접 확인해보며 토란파이를 잘  
만들 수 있는 비법을 공부했다.

곡성=양혜영기자

살기 좋고, 기업하기 좋은  
광주에 투자하십시오

- 🚗 친환경 자동차·에너지·문화산업 육성
- 🏠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
- 🏢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
- 👥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

GWANGJU